

현대차 등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여전

'두산건설 등 15곳 고용 대물림·세습' 심각... 업계 '근절책 시급'

일부 대기업에서 그간 사회 문제로 지적돼 온 노조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두산건설 등 전국 사업장 노조 15곳에서 여전히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현대자동차와 두산건설을 비롯, 금호타이어·현대로템·현대종합금속·롯데정밀화학·삼영전자 등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관련 조항으로 '신규 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 자녀 1인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 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들 기업 노조의 단협에는 '정년 퇴직자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직계 가족 우선 채용', '조합원 자녀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우선권 부여' 등이 담겼다.

일각에선 이 같은 대기업 노조 조합원 자녀의 우선·특별채용 등 조항에 따른 퇴행적 채용 관행을 이른바 '고용 대물림·세습'으로 규정, 취업준비생 등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층에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에 '국가 는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존재함에도 사실상 여전히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정년 퇴직자·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대기업 노조의 '고용 세습'에 대한 근절대책을 시급히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식 기자 ys97kim@



최근 잇단 여행사 폐업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경서 기자

여행사 폐업 잇따라... 소비자 피해 주의보

보상 받기 어려워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 필수

최근 여행사들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탐항공과 더좋은여행, e온누리여행사, 싱글라이프투어 등 여행사 4곳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상담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773건 접수됐다.

이들 여행사 4곳의 폐업은 최근 온라인 기반 글로벌 여행사의 국내 진출과 중소형 여행업체의 난립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출혈경쟁에 따른 경영 악화가 이들 폐업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폐업한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9월 말 기준 773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여행 관련 소비자불만상담(18,968건)의 4.1%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동기(96%)에 비해 70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7월부터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업체별로는 탐항공에 이어 더좋은여행, e온누리여행, 싱글라이프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상담 이유는 '환급' 관련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총 773건 가운데 흡소핑을 통해 판매된 상품 관련은 17건으로 더좋은여행이 10건, e온누리여행이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폐업 등으로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여행사로부터 직접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피해 소비자들은 우선 해당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가입된 경우에는 한국여행업 협회를 통해 각 여행사들이 가입한 영업보증보험으로 보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피해 소비자가 한국여행업 협회에 신고하면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협회가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게 되고 이를 보험사가 협회에 지급을 통보하면 피해대금 지급절차가 진행된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여행사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사업자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액수가 소액일 경우 피해보상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 액수가 여행규모에 비해 소액이 아닌지 살펴볼 것 △여행대금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여행 완료 시까지 여행계약서, 입금증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영식 기자



대기업 노조 조합원 자녀의 우선채용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현대차 본사 사옥 전경. 세계로컬신문 DB

면세품 현장인도제 악용 신종 보따리상 극성

예약 탑승권으로 면세품 취득 후 탑승권 취소 사례 급증

공항 면세품 현장 인도제도를 악용해 예약한 항공기 탑승권으로 면세품만 취득하고 다시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의 신종 보따리상이 극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구)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시내면세점 국산품 매출액은 3조 6천억원으로 이중 외국인이 현장에서 인도 받은 매출액은 2조 5천억원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장 인도 제도를 악용해 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탑승권을 예약하고 면세품만 취득 후 다시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1인 최대 192회 탑승권을 취소한 보따리상이 등장했으며 1인 최대 10억 7,500만원 어치의 면세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217명이 탑승권을 빈번하게 취소하고 1인당 최소 1억원 이상의 대량 면세품 구매 후 시장에 되팔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50회 이상 탑승권을 취소한 보따리상은 2명으로 평균 3억원 이상 면세품을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 됐다.



공항 면세품 현장 인도제도를 악용한 신종 보따리상이 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로컬신문 DB

박 의원은 "관세청은 시장을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보따리상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현장 인도 제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재 기자 jae-63@

주요 지면 안내	
'태권도 공인 9단' 이동섭 국회의원 2028 LA올림픽 전략 인터뷰	지역·사회 발전 공헌 대상 시상식 9면
"안전불감증 극복" 안전관리 특집	3면
	'일산에서, 완도에서...' 전국은 지금 가을색 축제 한창 10면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한 서구

DAEJEON SEOGU